

월요광장

뇌교육이 엘살바도르에서 일으킨 기적



이승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21세기 대안 교육으로 주목받는 뇌교육이 지난해부터 멀리 중남미 엘살바도르에 보급되고 있다. 국제 뇌교육협회가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부의 교육 원조 지원을 받아 엘살바도르에 보급해왔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엘살바도르 공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뇌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엘살바도르는 오랜 기간 내전에 시달리면서 산업과 빈곤, 사회갈등, 폭력이 난무하고 치안이 불안하여 교육 여건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뇌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 4개 학교 중 한 곳은 광단에 기대 활동하는 학생, 마약을 판매하는 학생들로 있었다.

하지만 뇌교육을 3개월 동안 받은 뒤 모

든 것이 달라졌다.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며 함께 운동을 한다. 말썽을 피우던 학생들이 경찰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도 한다. 마약을 끊은 학생들도 있다. 전국 학교 평가에서 늘 끌어였는데 수학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현지 학교 교장이 서울에 와서 직접 전해주었다.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2013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남미 엘살바도르 호아킨로데스노학교 글로리아 몰러(Gloria Muller) 교장은 동영상까지 보여주며 뇌교육을 극찬했다.

몰러 교장의 발언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뇌교육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엘살바도르 교육부는 전국에 뇌교육을 확대하기로 지난 7월 결정했다. 전국 모든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뇌교육을 창시한 사람으로서 뇌교육의 효과를 확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았지만, 이번 엘살바도르 성공 사례에 크게 감동했다. 국제뇌교육협회를 통해 듣던 것 이상의 성과였다. 엘살바도르 학생들이 뇌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삶에 희망과 목표를 세워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교

육자로서 이러한 소식만큼 더 기쁜 일이 있을까.

한국의 뇌교육은 전인교육 차원에서 '인간완성과 흥의인간' 철학에 근간을 두고 있다. 하늘, 땅, 사람의 조화와 상생을 강조한 천지인(天地人) 정신과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경천애인 정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생명 존중과 자연 친화적인 전인 교육을 위한 흥의인간 정신이 밑바탕에 있다.

특히 '흥의인간'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인 동시에 타인 존중과 배려, 공동체 의식 함양, 지구인 정신 정립 등 전인 교육에 가장 들어맞는 철학으로 인성 함양을 위한 근본 가치로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뇌교육은 뇌 관련 제반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 뇌의 본질적 가치를 자각하고, 삶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철학, 원리, 방법을 연구하는 융복합적인 학문이다. 부연하자면 뇌교육은 인간 뇌에 관한 깊은 탐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뇌 철학, 뇌운영체계에 관한 핵심원리, 체험적 교육방법론을 갖추고 있다.

뇌교육을 하는 목적은 누구나 가진 뇌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잘 쓰게 할 것인가에

있다. 뇌교육은 성적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뇌를 쓰는 진정한 목적을 알려주는 교육이다. 뇌교육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고,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

메타인지력이 향상되어 자기 성찰력, 직관력이 개발된다. 무엇보다 뇌를 활용하는 크고 가지 있는 꿈을 갖게 하여 내면의 평화, 행복감을 얻게 된다. 내면의 평화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부터 시작됨을 인식하게 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흥의 꿈을 갖게 해준다.

국내에서 많은 학교가 뇌교육을 도입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균질 우수 사례·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된 충북 형석고가 좋은 사례다. 다른 학교가 적극 따라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뇌교육으로 교육현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엘살바도르 뇌교육 기적 소식을 들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뇌교육을 창시한 사람으로서 뇌교육을 도입하려는 학교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社說

대학 구조조정에 재학생이 피해 봐서야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35개교 중 광주·전남지역 4년제 2곳과 전문대 4곳 등 6곳이 포함되면서 해당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가운데 학교 운영의 부실이 심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곳은 광양보건대, 한려대, 고구려대 등 3개 대학이다.

광양보건대와 한려대는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을 받게 되며, 고구려대는 학자금의 70%가 상한선으로 재학생과 신입생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여기에 대규모 사학비리로 물의를 빚은 설립자 이홍하씨의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등 4개 대학은 대출제한 외에 경영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또 한영대와 동강대, 호남대 등 3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포함돼 내년 국가 및 자체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당장 4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들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대출제한을 받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대학으로 선 학생 모집에 막대한 차질은 물론 학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대학은 지난 1990년 241개교에서 20년 사이 무려 100개 이상이 늘어나는 등 포화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실·비리 대학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폐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지원 제한 학교 재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이번 평가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한다. 해당 대학들도 1일 반값등록금제 실시와 구조조정, 광양보건대와의 통합추진을 발표한 것처럼 대학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진도해역 유물 발굴·보호 만전 기하라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탐사에 들어간 진도 오류리에 3세기 원삼국시대부터 16세기 조선시대에 이르는 280여점의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이 해의 고고학적 가치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개월 발굴로 일궈낸 성과로는 놀랄만한 것이어서 향후 발굴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특히, 지난 1976년 국내 수중발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삼국·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된 것은 오류리가 최초로, 전남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아닐 수 없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차 발굴에서 건져낸 유물을 보면 고려시대(12~1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 도자기 등이 80%가량, 조선시대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15%, 나머지 5%는 원삼국시대(1~3세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1차에서 발굴된 92점을 합쳐 지금까지 모두 370여점의 문화재가 세상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유물 중에는 국보급에 비견할 만

한 문화재들도 다수여서 학계가 흥분하고 있다.

진도 오류리해역은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의 배로 웨군 전함 330척을 격파한 명량대첩 전승지와 가까운 곳으로, 평소 물살이 빨라 과거 침몰한 선박을 발견할 가능성도 큰 곳이다. 지난 1976년 발굴된 신안 보물선의 재현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되는 바는 발굴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도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바닷속 유물들은 사실 땅속보다 도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물살이 빠른 해역이라 하지만 일회용 돈을 노리는 도굴꾼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오류리해역 유물도 도굴 범으로 인해 세상에 알리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발굴을 담당하는 조사단과 감독관청이 보다 치밀한 보호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발굴된 유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E=mc^2$. 1905년 6월, 스위스 베른 특허국 직원이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1879~1955)은 E (에너지)는 m (질량)에 c (빛의 속도)의 2 (제곱)를 곱한 값과 같다는 공식이 담긴 '특수 상대성이론'을 발표했다.

'질량과 에너지는 하나다'는 학술논문 내용은 기존 과학적 상식과 너무 다른 횡기적인 개념이어서 발표 당시에 무시를 당했다. 하지만 단순해 보이는 이 공식은 우주의 생성과 소멸을 주는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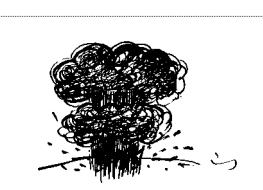
이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폭탄'도 가능하게 했다. 원자 핵과 중성자 입자를 잇따라 발견한 과학자들은 이론상 중성자를 이용해 원자 핵을 깨뜨려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키는 핵(核)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먼저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했지만 핵폭탄 완성자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일본은 항복한다.

"만약 독일이 원자폭탄을 성공적으로 생산해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나는 결코 손가락 하나 깨딱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일본 히로시마 원폭의 참상을

맨발의 견



로시마 시민들은 "피폭의 참상을 보여주고,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 행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된 역사교育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939년 10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폭 개발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던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후회했다.

"만약 독일이 원자폭탄을 성공적으로 생산해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나는 결코 손가락 하나 깨딱하지 않았을 것이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법조칼럼

'안네 카레니나 법칙'과 소년범 치분



이영준
광주지검 형사1부 검사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흔히 성공에 대해 한 가지 요소만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중요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수많은 실패 원인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재래드 다이아몬드는 이를 '안네 카레니나 법칙'이라 명명하고 이 법칙을 통해 인류사의 여러 현상에 관해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인생에 대한 통찰을 단 한 줄의 문장에 담아낸 틀스토이도 대단하거니와 이를 해석하는 재래드 다이아몬드의 타격 역시 놀라울 따름이다.

필자는 광주지검에서 소년범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수많은 소년범을 접해 보면 이를 이 법칙의 유혹에 빠져든 배경에 학업, 성행, 가정환경, 교우관계,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제1조에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소년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육개선이 법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천천히 일률적인 처벌이나 교육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년법의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는 오래전부터 '처분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 오고 있다. 즉 소년법상 '검사 결정 전 조사제도'를 통해 대상 소년

범의 품행·경력·생활환경·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소년범을 개선·교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게 된다. 예컨대 기소유예로 처분 시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예술치료, 봉사활동 참여, 범죄예방원 관리감독 등을 선별해서 부과하거나 소년부 송치, 구속·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도 소년법의 특성과 환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를 좀더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검사 결정 전 교사의경장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중·고교에 재학 중인 소년범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대상학생의 평소 성적, 학업성취도, 학부모 면담 결과 및 교사의 종합적 의견을 묻고 이를 검사의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조언과 협력으로 학교에 대한 통찰을 확장하는 한 줄의 문장에 담아낸다. 소년법은 제1조에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소년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육개선이 법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천천히 일률적인 처벌이나 교육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안네 카레니나'는 유명 정치가와 결혼하여 8살 난 아들을 둔 1870년대 러시아 사교계의 꽃으로 돈과 명예, 그리고 타

고난 미로까지 무엇 하나 부려울 것 없는 인생을 사는 여자였지만 젊은 장교와의 불륜 끝에 결국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한다. 재래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언급하면서 그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로 매듭짓고 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빼앗기는 사람은 적다."(마태복음 22장 14절)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수많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그만 어렵다는 의미이리라.

필자가 만나 본 소년범들이 장차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려면 역시 많은 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 격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광주지검은 광주·전남도 교육청과 협력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법상 학교 폭력 예방 학교 지원활동, 학교 폭력 예방교육 연수 등 6개 항목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 첫 작품으로 지난달 말 전남 교육청이 운영하는 희망캠프에 청소년 20명의 교육을 위탁하고 2박3일 동안 품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검찰과 지역사회가 손잡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돋는 작은 시도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검찰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청소년 비행에 관한 적절한 예방과 대책이 될 수 있는 좋은 시도들이 계획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안전한 사회' 정부정책에 거는 기대



강민
송정 리라이온스 회장

부처와 국회는 새로운 법률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으로 겁을 주어 범죄를 억제하는 방법은 단기적 처방이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다. 수백, 수천 년 전 과거에서는 지금 보다 훨씬 강한 법 제도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다.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범죄자들에게 미래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범죄를 저질러 생기는 가치는 당장 지급이고 저질러는 후날 얘기인 것이다. 순간의 황분과 충동이 미래 저질러는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범죄는 사회문제의 부산물이므로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범죄는 크게 줄어들 수 없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자식을 깊게 죽이는 부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속과 저질러 일련의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